

예배와 영상:

개혁주의 예배 안 영상 사용에 대한 신학적 고찰

Worship and Film:

a Theological Study about Using Film, Video, and Photography in Reformed Worship

서나영 (Na Young Seo)

I. 서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회중 예배의 ‘예술’ 사용에 대한 개혁신학의 관심은 19세기 예배운동(Liturgical Movement)을 기점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 운동은 회중 찬양 안의 성령의 역사가 부각되어 강조됨으로 음악과, 건축, 시각, 공연 예술 양식의 변화와 함께 예배 안 예술에 보다 더 큰 접근성을 열었다. 이에 현대 신학자들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예배개혁을 하며 달리했던 예술에 대한 성경적 견해들을 기준으로, 예배 안 예술을 최소화 해온 개혁주의 교회 예배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예술적 방향을 연구해왔다. 예술을 꺼려하는 개혁주의의 예배가 최근 예술에 집중하는 이유는 젊은 세대 예배를 중심으로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예배 문화의 시대적 개방성 때문이다. 그들의 예배에 고전 찬송가에서 크리스찬 락(Rock Music)과 EDM(Electronic Dance Music)에 이르기까지, 또한 유럽의 칸타타에서부터 남아프리카 흑인 소울 합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을 사용하고 있고, 젊은 층 예배를 중심으로 금기시 되었던 예배 안의 댄스,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영상, 뮤지컬과 스킷 등의 공연예술 외에도 다양한 종합 예술 양식 또한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예배에 쓰이는 음악, 시각, 공연예술 등의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진 것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발전한 예배 안 영상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목했다. 이에 필자는

현재 개혁주의 예배에 널리 사용하는 디지털 영상에 대한 신학적 고찰이 불가피함을 전제한다.¹⁾ 예배 안 예술에 대한 다양성의 포용은 하나님의 창조의 풍요로움을 반영하고 문화적 접근으로 복음 전파를 하는 문화 선교의 긍정적 관점이 있지만, 예술의 다양성과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서 교회의 예배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더 큰 분별력과 관심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예배에 사용되는 영상들의 신학적 위치와 출처를 세심하게 따져보아 반기독교적 문화의 요소들을 지양하고 영상예술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조명하여 복음의 감동과 유익이 있는 예배를 돕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첫 장은 현대 예배 영상의 종류와 본질적 성격을 밝히고 영상 사용에 대해 개혁주의 교회가 깊이 고찰해야 할 기준으로서의 성경과 신학의 프레임들을 소개한다. 이어서 두 번째 장에서는 영상의 두 가지 신학적 유익을 고찰하여 예배를 위한 훌륭한 도구로서의 영상예술의 신학적 의미와 역할을 조명한다. 영상이 이야기 가 가진 힘으로 효과적인 복음전파를 위한 도구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고 집중하도록 돕고, 전세대 성도의 마음을 열고 감동이 있는 예배를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렇게 본 논문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새로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영상에 관한 예술양식을 신학적 렌즈로 투과하여 분별하고, 무지한 예배자가 아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영상의 신학적 사용의 기준을 모색한다.

II. 예배의 영상 사용을 위한 신학적 프레임(Frame)

1. 예배의 영상예술이란?

영상이란 멀티미디어(multimedia)²⁾의 핵심기술로 시각적 그림이나 이미지와는 차별화되는 “움직이는 영상물”의 총칭으로,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그림이나 사진 등 다양한 이미지 파일을 의미하며, 영화나 TV프로그램처럼 영상으로 제작된 파일 그 자체를 지칭하기도 한다(두산백과, 2019). 특히 동영상 파일은 움직이는 물체의 영상을 TV의 화면처럼 만든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이미지의 연속적인 화면과 함께 음악이 함께 재생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음악과 같이 시간예술을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각예술의 특성 또한 두드러진 종합

1) 핀슨(Matthew Pinson)은 예배가 추구하는 성경적 해석에 따라 달라진 스타일의 다섯 학자의 예배관점의 을 정리했는데, (1) 규정적 예배(Liturgical Worship), (2) 전통적 복음주의예배(Traditional Evangelical Worship), (3) 현대예배(Contemporary Worship), (4) 혼합예배(Blended Worship), (5) 이머징예배(Emerging Worship)로 나뉜다(Pinson, 2009) 이 중 현대예배, 이머징 예배에서 영상이 주로 많이 쓰이며, 이 두 관점의 예배는 현재 개혁주의 교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추세다.
2)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영상, 음성, 문자 따위와 같은 다양한 정보 매체를 복합적으로 만든 장치나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다중 매체’, ‘복합 매체’로 불린다.

예술의 현대적 장르라 할 수 있다.³⁾

최근 교회 예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자원 중에 하나는 미디어, 디지털 영상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머징 교회(Emerging Church)를 시작으로 많은 카탈로그(catalog)를 만들어 냈고, 설교 삽화(sermon illustrations), 연극, 카운트다운(countdowns), 미니드라마(Mini Movies), 간중/인터뷰, 광고/소식 등 예배트랙, 모션의 배경, 정지배경 등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양한 종류의 영상이 사용된다. 예배 안의 시각예술과 음악의 남용을 견제했던 개혁주의 교회는 이제 4차산업혁명 기술의 시대의 종합예술⁴⁾인 영상예술에 문을 연 것이다. 예배의 시작 전부터 대형스크린에 예배를 알리는 디지털 정지배경을 음악과 함께 띄우고 예배 실황을 공유하기도 하며, 알맞은 디자인과 함께 순서를 알려주고, 광고영상을 미리 만들어 대중매체의 뉴스와 흡사한 방송영상을 제공한다. 때로는 설교를 돕는 미니영상을 제공하고 디지털 삽화를 띄우기도 한다. 한 주간 교인들의 교회행사와 소그룹 모임 또는 사회봉사 내용을 편집하여 성도의 아름답고 선한 삶이나 간증을 예배 중 영상으로 내보내기도 하며, 교회학교 학생들의 수련회 영상이나 설교를 편집한 미니메세지 영상을 축약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수많은 영상의 종류 중, 본 논문은 시각적, 음악적, 텍스트적으로 일부가 혹은 전체가 보편적인 예술성이 있어 영상예술로 분류될 수 있는 영상들을 중심으로 다룬다.⁵⁾ 또한 영화라는 예술장르에서 많이 쓰이는 다큐멘터리(Documentary), 즉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을 사실적으로 담은 영상물이나 기록물 또한 영상 예술 범주 포함한다.

영상은 시각적 이미지, 음악, 스토리가 공존하는 장르이며 다른 예배 예술과 마찬가지로 신학과의 비판적 대화가 필요하다. 영상 안의 시각적 이미지에는 순수예술 외의 새로운 자원인 조명, 세트디자인, 촬영기술 등이 포함되며 무용이나 연극 등의 공연예술 등의 다양한 예술을 담을 수 있고, 설교자의 메시지와 예배 순서자들을 포함한 성도의 예배 반응도 포함된다. 또한 사운드에는 클래식부터 펑크 락, 인디음악까지 수많은 장르가 쓰여지고, 간중메세지나 인터뷰, 설교의 토막 등의 텍스트가 있는 사운드가 사용된다. 무엇보다 대중문화와 흡사한 영상예술 장르가 예배의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와 교차될 때 예배와 예술에 관련된 신학은 이 세 요소 모두를 포괄해야 하며, 그 안의 녹아있는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을 모두 사유해야 한다. 더욱이 이미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술의 힘을 견제하고 “오직 성경” 중심의 예배의 전통아래, 개혁주의 교회들은 새로운 복합예술 장르인 영상의 예배사용에 관한 교리적 해석에 있어 새로운 연결성을 고려해 폭넓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광범위한 예술 장르들의 복합체를 능동적이고

3) 동영상은 TV프로그램이나 영화,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강의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 범주 안에 영화나 예술성이 있는 짧은 비디오들은 예술의 한 장르로 분류할 수 있다.
4) 종합예술이란 19세기 중기 이후, 작곡가 바그너(Richard Wagner)가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이다. 바그너는 미래의 이상적 무대예술로서 악극(樂劇)을 소개하고, 그것은 즉 음악·무용이 혼연일체가 된 종합예술(Gesamtkunstwerk)이라고 말했다.
5) 본고에서 예술은 대중예술과 순수예술 모두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쪼개어 기독교 신학의 프레임 안에 분석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개혁주의 교회와 신학은 (1) 기존의 영상사용에 대해 경계하고, (2) 예배에 유익하고 신학적으로 합당하면서도 문화적으로 젊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좋은 영상 작품들과 방향을 발견하며, (3) 더 나아가 신학적으로 올바르며 훌륭한 예배 영상예술 작품들과 예술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

2. 예배와 영상예술을 위한 신학 프레임

스토리가 있어 시간과 텍스트에 뿌리를 둔 영상은 다른 예술 장르보다 더 깊고 폭넓은 신학과의 대화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짧은 미니드라마 한 편에는 그 스토리의 명시적 내용 외에는 숨은 가정과 맥락이 존재하며, 그 스토리에 대한 복잡한 분석과 평가 외에, 사용된 사운드와 음악, 시각적 이미지의 시대적 가치관, 미학적 분석, 신학적 분석이 뒤따른다. 고급예술로 평가받았던 순수예술 외에 미학적으로 등한시되었던 그래픽 디자인(Graphic Design)이나 모던 아트, 디지털 음원의 미학적 개념을 포함하기에 연구의 시야를 넓혀야 하며, 이 모든 광대한 총체적 예술 장르에 독고 예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영상이 사용되는 예배문화를 신중히 사유해야 한다. 즉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와 신학은 성도의 신앙적 가치관과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이 장르의 힘을 인식하고 신학적 관점을 명확히 하여 건강한 예배문화를 주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다.

이를 위해 예배를 위한 영상 연구에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인식으로 사유를 시작해야 한다. 이 신학 분야들은 영상을 들여다보는 기독교 세계관의 렌즈나 창을 의미하며, 이는 특별계시인 성경, 일반계시 및 일반은총, 창조, 이름다움과 즐거움, 죄와 타락, 성도의 부름받음(Calling), 초월에 대한 신앙, 성육신, 구속과 성화, 성찬, 기독교 영성, 예배, 하나님의 영광 등의 프레임(Frame)이다.

(1) 성경

그리스도인들은 영상의 감상 또는 제작과 신앙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즉 성경이다. 성경은 기독교 예술을 분석하는 출발점이며, 가인과 아벨의 제사(창 4)로 시작해 요한계시록의 완성된 예배(계 7)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처음과 끝을 말한다. 성막과 솔로몬 성전을 통해 예배 안 예술의 아름다움에 대해 다양한 형식을 보여주며(서나영, 2018C: 69), 신약시대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엡 5:19)”로 드리는 예배를 가르친다.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판단해야하는 궁극적 진리의 근원이며, 모든 예술 장르의 작품에 대한 일반은총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제공한다. 라이켄(Leland Ryken)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에게 계시하신 그의 사랑이야기로 큰 틀에서 내러티브(narrative)를 형성한 문학적으로

뛰어난 책임을 주장했다(Ryken, 2005: 62).⁶⁾ 필자는 예배에 사용되는 모든 영상은 성경은 바탕으로 그와 그의 사람들에게 관한 스토리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야 하며, 성경의 스토리와 예술성은 기독교 영상학의 표본이 된다.

(2) 창조

성경은 인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임을 가르치고 있다. 성경적 창조 교리의 두 가지 주요 원칙은 예배의 영상 사용의 핵심적 프레임을 제시한다. 첫째, 하나님은 아름답고 기능적인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아름다운 창조물로 인해 기쁨(joy)을 얻으시고 즐거움(delight)을 느끼셨다는 것이다(창 1:31). 그러므로 창조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아름답고 유익한 예술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서나영, 2018B: 132-34). 둘째,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가진 모든 재능이나 능력에 대한 의무가 있음을 암시한다.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에게 예술적 영감과 지혜를 주셨다는 성경의 예를 기억해야 한다. 베르자예프(Nicholas Berdyaev, 1950: 218)는 인간의 예술적 창의력을 “하나님의 요구와 부르심”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에 대한 반응으로 인간의 창조적 역할을 기다리고 있다”고 표현한다. 즉, 창조의 교리는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예배에 예술을 창조하는 이유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제공한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예술활동의 중요한 신학적 프레임이다.

(3) 죄와 타락

인간의 죄와 타락은 예배와 영상 예술을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의 주제 중 하나다. 많은 문학 작품과 예술작품들이 원죄의 근간 위에 세워졌으며, 반(反)기독교적 사상과 거짓을 표현하고 부도덕한 영향을 미치는 예술이 대중문화 속에 만연하다. 그리고 이러한 세속 예술은 기독교 역사의 시작부터 기독교 문화와 융합되어 발전했다(Brwon, 2008: 10). 무엇보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안에서 예술은 쉽게 잘못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출 32: 겔 8). 그 이유를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성경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다(신 4:19; 출 2:3-4; 롬 1:23). 이 우상숭배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일”이었으며(서나영 2018C: 73-4), 이 세상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었음(롬 1:23)을 뜻한다. 즉, 우상을

6) 라이켄은 성경 자체가 뛰어난 문학작품일 뿐 아니라 음악, 문학, 건축, 시각 예술 등의 예술형식들이 예배의 핵심요소임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Ryken, 2005: 62)

찾는 인간의 갈망은 하나님을 찾는 타락하고 죄로 왜곡된 인간의 마음을 드러내고, 예술 제작에 있어 또한 영상을 예배에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프레임이라 할 수 있다.

(4) 성육신

성육신(Incarnation) 교리는 기독교 미학에 대한 대부분의 시도의 초석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마스쿠스 요한(John of Damascene)은 성육신 교리를 바탕으로 성상(icon)사용에 관한 주요 저서를 남겼는데, 그는 “육체가 없고 형태가 없고, 자신의 본성의 무한한 범위에서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태로 존재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위 물질의 종의 형태를 취하고 키가 되고 육신의 몸이 된 것을 깨달으며, 그의 이미지를 그려서 그분을 바라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John of Damascus, 1980: 18). 즉,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형상을 입음으로 신성한 존재가 이미지가 되는 실제적 현상을 보여줌으로 인간의 미적 활동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개혁주의 신학과 교회는 성상을 파괴하고 예배를 개혁했으나 성육신 교리는 기독교 예술가들의 뿌리가 되어 많은 예술가들이 그들의 예술활동을 뒷받침할 중요한 신학적 프레임으로 작용한다(서나영, 2018A: 196-99). 영상의 이미지, 소리, 스토리의 구체적인 예술 활동과 예배에의 사용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심도있게 사유해야 할 것이다.

(5) 구속과 성화

성육신에 바탕한 예술 이론의 프레임을 넘어 예술가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배에서 영상은 살아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타락한 세상에서 천상의 안식을 맛보는 예배시간에 성도들이 아름다움의 의미를 경험하고 세상에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성화(sanctification)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를 닮아가며 것처럼 선과 악에 응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리스도인의 활동, 행동, 윤리, 도덕을 정의하여 영상이라는 예술 속에 순례자의 길을 표현해야 하며, 동시에 반(反)기독교적 사상이 담긴 예술적 트렌드(trend)를 반대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의 삶으로 인도해야 한다. 이는 대중예술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현대의 예배 영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프레임이다.

(6) 성찬(聖餐, the Sacrament)

그리스도인들의 성찬식은 이 땅의 현실적 실체가 영적 현실을 가리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중요한 성례(聖禮)이다.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성찬은 땅의 것들이 하늘의 물건을 위한 매개체가 되며, 이미지와 상징이 진리를 표현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영적인 실체를 표현하기 위해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는 거룩한 표적으로 예술 작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모델을 제공한다. 상징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와 연합한다는 의미의 성찬 교리는 영상을 제작하고 예배에 사용함에 있어 예술적 도구의 본질적 목적을 되짚어주는 중요한 프레임이다.

(7) 예배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과 대화와 교제를 나누며, 찬양으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쁨의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롬 1: 18-25, 계 19:10, 22:8-9)와 요한복음 4장 19-23절에 나타난 합당한 예배의 모습을 중심으로, 예배와 예전의 역사와 다양한 신학적 관점은 영상 사용의 올바른 방법을 위해 얼마나 고심하며 연구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회중예배”와 “성도의 매일의 삶속의 예배”에 대한 예배학은 구약시대 예배의 문학, 시각 예술 및 음악이 쓰인 모습과 일상의 삶속에서의 중요성의 원칙을 함께 광범위하게 암시하고, 구약의 예배요소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통한 성경적이고 복음주심적인 예배의 원칙은 예술사용의 기본 프레임이 된다.

또한 영상을 예배에 사용하기 이전에, 다양한 예술과 문화의 관계가 예배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신학적 관점들과 이 관점들에 대한 비평들을 인지해야 한다. 회중예배와 예배장소에 대한 다양하고 자유로운 신학적 관점들은 예배가 드러지는 열 건물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실황을 보는 것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현재의 예배문화를 만들었다. 또한 영상을 문화 선교의 목적으로 만들어 불신자에게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 대중매체의 내용과 흡사하게 만들기도 한다. 젊은 세대는 시각적 이미지와 영상 교육에 길들여져 예배 또한 영상이 주도해야 하는 예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에 현명한 신학적 답을 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대한 신학적 프레임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6번은 하나님이 십계명중 두 번째 계명에 요구하신 이미지 금지를 동의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또한 그렇다. 기독교 예술가는 개혁주의 예배의 올바른 예술 사용을 위해 이러한 예배의 규정적 원리 위에 세워진 개혁주의 교회 모습이 왜 상대적으로 소수의 교회만이 이 원리대로 예배를 드리는지 의문을 가지고 신학적 고찰을 해야 한다. 전통적 복음주의 예배와 혼합예배, 현대 예배, 이머징예배(emerging worship) 등 다양한 예배의 신학적 관점들을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영상예술 사용을 위해 능동적이고 반성적인 모범적 프레임이라 할 수 있다.

(8) Soli Deo Gloria(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고전 10:31). 이것은 광범위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으로, 예술적 창조성, 탁월함, 내용, 보편성, 초월성 등 예술적인 모든 측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직접적인 매개체이며 이는 또한 예술의 감각적 초월성이 중요한 도구가 됨을 의미한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이전 역사에는 찾아볼 수 없던 기술과 종합예술이 만난 영상이라는 장르가 어떤 형식을 가졌던 간에 예배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됨을 기억하는 중요한 프레임이다.

III. 예배 안 영상의 역할

영상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장르이고 예배문화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다. 성경과 신학적 교리들을 프레임으로 예배와 영상의 본질을 투과하여 보고, 이 장르를 사용하며 개혁주의 교회의 신학적 전통을 더 잘 활용하면서도 이를 강화할 방법을 찾아야한다. 필자는 영상이 개혁주의 예배 안에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유익할 수 있는 두 가지 숨겨진 힘을 조명하여 미래의 예배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1. 이야기(narrative)의 초월성: 다감각적 메시지 전달

예배에서 사용할 영상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 말씀 또는 신앙생활에 관한 텍스트의 효과적인 전달에 있으며, 사운드와 이미지와 함께 다감각적인 메시지 전달로 인한 성도의 초월적 경험 제공에 있다. 오늘날 예배 안에 사용되는 영상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사실과 실제 인물들을 담은 다크멘터리라는 장르라는 것과, 많은 광고나 간증영상, 설교클립(sermon clip) 등의 영상은 내러티브와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순차적 시간배열 방식 또는 시간을 뒤섞어 모더니즘 기법인 모자이크(Mosaic) 배열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이다.⁸⁾ 대개 성도의 개인적 경험

7) 다크멘터리는 주로 교육, 교육 또는 역사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 현실의 일부분을 문서화하기위한 사실적 영상로 정의된다.

8) 모자이크식(Mosaic) 영상은 멀티 스레드 내러티브(Multi-threaded Narrative), 네트워크 내러티브(Network Narrative), 모듈러 내러티브(Modular Narrative) 또는 퍼즐 스토리(Puzzle Story)라고도 할 수 있는 이어지지 않는 비선형(non-linearity) 이야기/내러티브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이 구조가 청중을 더 집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상의 의미를 심화시키는 데 사용되며 다양한 편집기술이 사

과 간증의 인터뷰, 교회 사역 자료영상, 신앙의 메시지를 담은 미니드라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 영상들의 기법은 이벤트로 결합된 여러 스토리로 구성되기도 한다.

고든 린치(Gordon Lynch)는 18세기의 소설처럼 영상의 스토리는 오늘날 개인의 정서적, 심미적 경험을 육성하는 문화적 도구이자 내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텍스트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다(Lynch, 2007: 109-113). 또한 미디어의 가치에 대해 일부 신학자들 사이에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영상으로 신학적 텍스트의 인식이 유용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밝혔다. 미국의 영상 신학자 존스톤(Robert K. Johnston)은 그의 논문 『Transformative Viewing: Penetrating the Story's Surface』(초월하여 보기: 이야기 통찰하기)에서 영화는 영화의 실제적인 의미뿐 아니라 이면에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 진리를 표현하는 과정을 유익하게 묘사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Johnston, 2007: 304).⁹⁾ 즉, 영상이라는 예술은 본질적으로 시청자에게 이야기(narrative)를 전달하며, 영상의 주제 외에 그 이야기 안의 상징적 메시지와, 맥락과, 숨은 가정을 다감각적 방법으로 시사하는 것에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바르소티(Catherine Barsotti)는 이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중요한 질문들을 던졌다. “영상에 묘사된 인물이 경험한 진실을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색칠을 했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상과 관련된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습니까?”하는 질문들이었다(Barsotti, 2007: 194-5). 바르소티의 질문의 의도처럼, 영상 스토리의 리얼리즘은 우리의 현실 세계를 이야기함으로써 신앙의 영적 세계를 묘사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을 심어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세계와 보이는 세계 속의 연결성을 말해준다. 즉, 예배 영상 속의 내러티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하는 온전한 이상적 삶의 초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또는 성도의 고통에 대한 스토리가 포함되지만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성도의 소망, 영원한 삶의 결말로 영광스럽고 행복한 엔딩을 꿈꾸게 하는 것이 기독교 영상 스토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 끝의 소망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현실 세계에서 눈으로 보이지는 이상의 표상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듣고 기억함으로써 새 힘을 얻어 삶을 방향을 재정비한다.

한편, 영상 속 이야기의 힘이 전달되는 방식에 있어 영상의 다감각적 기능은 특별하다. 저명한 문화 신학자 루이스(C.S. Lewis)는 이야기의 즐거움은 중요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을 잡아서 그물에 건져야만 한다”고 표현하며, 영상 속 이야기의 초월성을 주장한다(Lewis, 1968: 30). 어떤 이야기 안에는 일련의 사건의 계승의 의미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영상 속 다감각적 표현의 이야기는 “실제 그 이야기보다 더 함유하고 있는 무언가의 구체화 또

용될 수 있다.

9) 이를 위해 존스톤은 중세 기독교의 네 가지의 해석 방법을 영화의 이미지나 그 이미지를 통해 다른 세상의 현실을 보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해석의 열쇠로 사용함에 있어 그 가능성을 연구했다.

는 중재”의 이미지 때문이다(Lewis, 1954: 16-17). 즉, 이는 다감각적 지각 능력 또는 의식이 중요한 영상 예술의 신비한 초월성이다. 루이스에 의하면 좋은 이야기는 신비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의식의 정상적인 방식을 벗어나 “우리의 탄생에 약속하지 않은 기쁨을 누린다”고 묘사한다(Lewis, 1954: 16-17). 또한 마쉬(Clive Marsh)는 2004년 영국의 영상 시청자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종종 그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을 얻는다고 밝혔다(Marsh, 2007: 147). 이에 러시아의 영화감독 타르코프스키(Andrei Tarkovsky)가 영상을 “이미지에 민감한 독서”라고 표현하며, 영상은 진실의 상징을 넘어 “스스로를 가리키지 않고 우리가 이끌어내는 것”이며 영상 예술에 내재된 초월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Loughlin, 2007, 300-1). 즉, 다감각적이고 총체적 예술과 함께 메시지를 전달 받을 때, 예배의 시청자는 명시된 영상 스토리에 의해 개인의 신앙적 맥락의 상상력을 가져오고, 영적으로 더 깊은 경험과 신성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영상이 성상이나 다른 시각적 예술 또는 메시지가 있는 예배음악과는 차별되는 이유는 명확한 스토리와 메시지 전달에 그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영상의 이야기에는 성경으로 엄격한 통제가 있어야 하지만, 영상 예술에 내재된 초월성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예배에서 신앙적 텍스트와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으며, 단순한 예술이 아닌 메시지의 다감각적 전달은 인해 오직 성경에 입각한 개혁주의 예배의 본질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3. 다세대 융합 예배를 위한 문화적 도구

영상의 올바른 사용은 전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예배의 연합을 제공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약 3분의 2의 고등학생들이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이 더 이상 교회에 참석하도록 강요받지 않는 즉시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Pinson, 2008: 300). 그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대답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문화, 예배의 스타일과 표현, 설교를 전달하는 방식 등과 관련이 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젊은 세대가 점차 줄어드는 이 시점에서 전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예배의 표현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상의 사용은 문화적으로 소통하는 건강한 개혁주의 예배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인간의 문화는 사람들이 삶을 살고 배우는 방식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젊은이들은 디지털-네이티브(digital-native) 시대에 태어나 이미지 중심의 미디어를 흡수하고 인터넷의 바다에서 자라고 있다. 개혁주의 교회는 이러한 현상이 시각적 학습자의 비율이 증가되었음을 인지하여 진지하게 사유해야 한다.¹⁰⁾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육받고

10) 미국의 인디애나주는 2016년 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이패드를 통한 시범교육 도시로 선정되었고,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막을 수 없는 추세다. 2018년 1월 2일 매일경제 신문에는 비영리기관 커먼 센스 미디어는 지난해 말 각종 조사를 통해 8세 이하 미국 어린이 중 42%가 이미

자라나야 한다면, 예배하는 방법, 설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재조명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현대 기술과 종합예술의 종합체인 영상의 사용은 그 변화의 핵심적 자원이다.

이머징 예배(emerging worship) 관점은 다른 예배 관점보다 영상 사용을 지지하며 선호한다. 김볼(Dan Kimball)은 이머징 예배를 “현대의 문화에서 사람들이 의사소통하고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과 관련된 예배 표현”으로 정의한다(Kimball, 2008: 297). 이 예배는 예배의 규정적 원칙¹¹⁾에 반대되는 개념인 ‘예배의 규범적 원칙(Normative Principle of Worship)’에 의해 발전된 관점으로 이는 루터파에 의해 제정되었고 성경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예배의 원리이며, 교회가 동의하는 아래 모든 문화적 관습과 요소가 예배에 허용된다는 예배 원칙이다.

이러한 이머징 예배의 관점은 다양한 예배표현 자원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 개신교의 예전과 형식부터, 클래식 성가곡부터 현대찬양 음악, 스테인드글라스부터 모던한 시각적 디자인과 영상들, 교회건축 예술에 이르기까지 전통과 문화를 융합하는데 개방적이다. 오직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 렌즈로 다양한 자원의 예배 표현이 포함되는 것이다. 김볼(Kimball)은 세대마다 문화마다 성도들이 다른 방식으로 배우고 의사소통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우리의 회중예배에는 다양한 “색상(color)”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Kimball, 2008: 349).¹²⁾ 또한 그는 이 색상은 우리가 사는 문화에 따라 형성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 만연한 세상의 사람들의 현실에 의해 형성되는 것과는 다르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적 표현은 당연히 예배를 형성 할 수밖에 없는 요소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표현한다.¹³⁾ 심지어 전통적인 예배 순서와 방식에 의해 예배드리는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자녀의 주일학교 예배의 현실은

태블릿 형태의 개인 디바이스를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에도 아이가 말을 배우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다룰 줄 아는 나라가 되었다.

11) 성경이 명령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개혁 교회와 장로교에 의해 창안된 예배의 규정적 원칙(Regulatory Principle of Worship)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21.1)에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상상력에 의한 인간의 개인적 계시의 방법을 따라 예배하는 것을 제한한다”라고 명시했다. 즉, ‘오직 성경’에서 확실히 발견되는 특정한 요소들로 예배의 공공 예식을 정하는 원칙으로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다른 관습들을 금지하는 원리라 할 수 있다. 이는 음악 외에 예배 안 무용과 시각 예술, 그리고 필요 이상의 예술적 요소는 견제하고 금지함을 의미한다.

12) 김볼(Kimball)은 예배의 자원을 팔레트에 비유하여 두 가지 빛을 기도와 성경으로 정하고, 신성한 예배공간, 음악, 교육 및 음성단어, 순수예술/그림/사진, 기도서, 비디오, 영화 등을 각기 다른 색상의 물감으로 비유하였다(Kimball, 2008: 304).

13) 토마스(Gary L. Thomas)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하는 9가지 영적 기질 또는 “신성한 길”을 분류하여 분석했다(Thomas, 2000).

그들의 의사소통 행위가 포함됨으로 그들의 문화적 언어로 예배한다. 장년 세대의 예배에는 댄스나 무용이 엄격히 금지되지만 유치부 또는 유년부 예배 찬양에는 무용이 없으면 찬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무용을 통해 가사를 배우고 현대음악 스타일을 통해 성경 메시지를 전달받는다. 또한 장년들은 예배 실황 영상화면으로 성경과 찬송의 텍스트를 제공받지만 젊은 세대는 더 나아가 미니드라마 영상이나 삽화를 설교의 일부분으로 사용한다. 이처럼 개혁주의 교회는 젊은 세대들의 예배 표현의 개방성을 인정하고 미래의 예배를 예측하고 다세대간의 융합 예배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창조적 사고와 그 창조성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복음의 열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예배에 사용하는 도전을 예배문화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다문화와 다세대에 시름하는 현대 교회를 예배를 통한 연합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대중문화화 된 새로운 장르의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고 신앙성경은 회중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포함되어야 하고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교회의 역사가 그 변화를 인정한다.¹⁴⁾ 영상의 장르적 특성 상 많은 맥락과 가치관을 함유할 수 있음으로 성경적으로 반(反)기독교적인 요소들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할 것이고, 시간 예술인 만큼 전세대 성도를 아우를 수 있는 가치 있는 복음적 내용의 영상에 심미의 영상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신학적 규제 아래, 영상이라는 도구는 미래 교회 예배의 성도 간 연합의 예배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IV. 나가는 말: 예배 영상의 방향 고찰

예배의 표현 방식에 대한 예술의 연구에서, 영상에 관한 자원의 분석은 가장 연구되지 않은 분야이다. 우리의 예배는 생각보다 자주 영상이 나타나고 영화의 필름 클립(Film Clip)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배에 다음 순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제에 연관된 스토리의 영상을 시청하기도 하고, 교회 방송팀이 제작한 교회 소식이나 성도의 간증을 띄우기도 한다. 그리고 젊은 세대의 예배는 영상 없이는 소통되기 힘들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영상을 통해 성경을

14)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지나며 성경에서 가르치는 회중 예배를 이루는 불변하는 요소들인 설교, 기도, 찬송, 성찬, 찬송 등은 변함없이 그 자리들을 지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불변의 요소들은 수많은 지역과 문화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풍습과 표현은 늘 새로이 기독교 예배에 적용되어 변화해 왔으며, 이는 개혁주의 교회도 예외일 수 없었다. 미국의 역사 신학자 화이트(James White)는 예배와 예전의 역사를 다루었던 그의 책의 결론 장에서, “예전은 신성하게 제정된 불변의 요소들로 구성되며 이 요소들은 변화 될 수 있다. 이것들은 예전의 내적 본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의 침입으로 고통 받거나 부적절하게 된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야만 할 뿐 아니라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예전에 관한 원칙을 선포했다(White, 1993: 178).

효과적으로 배우고, 삶의 영상을 통해 그 유비(類比)를 깨닫기도 한다. 설교자의 인터뷰와 설명을 띄우기도 하고, 성경에 관련된 영상으로 설교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개혁주의 교회는 다음세대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미래 교회를 위해 영상 사용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성경을 펼쳐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성경에서 시작해 영상의 올바른 예배사용을 위한 신학적 프레임들을 제공했다. 성경, 창조, 죄와 타락, 성육신, 구속과 성화, 성찬,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기독교 교리의 렌즈를 통해 영상 예술을 바라봐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영상에 대한 신학적 바탕이 부족함을 경고하고, 영상 사용이 이미지를 두려워하는 개혁주의 교회의 예배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두 가지의 이유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영상예술이 가진 이야기의 다감각적 메시지의 초월성에 대해 연구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세대의 융합 예배를 위한 효과적 도구로서의 영상의 유익을 다뤘다.

매주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정, 또는 비밀 장소에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의 귀한 것으로 경배하며 예배한다. 스테인드글라스에 둘러싸인 예복을 입은 성도들의 엄숙한 예배의 성소부터 자유롭게 에너지와 감성이 넘치는 현대적 예배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역사는 그 표현의 자원에 대해 수많은 관점을 소개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어느 측면에서 중요하고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의 취향과 문화에 관한건지, 끝없는 논쟁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임은 분명하다. 본고는 새로운 예배 자원인 영상 예술이 개혁주의의 전통에 흠집을 내지 않고 오히려 말씀의 메시지를 강화하여 공존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영상이 문화적 이질감으로 분열되는 교회양상에 문화적 연합을 위해 예배의 중요한 도구도의 역할이 가능함을 제안했다. 필자는 이 새로운 장르가 기독교 교리의 프레임 안에 엄격히 통제될 때, 성경적 예배의 원칙에 영상 사용이 어긋나지 않으며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는 예술적 표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조속히 나올 것을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Brown, Michelle. (2008). *The Lion Companion to Christian Art*. Oxford, England: Lion.
- John of Damascus. (1980) *On The Divine Image: Three Apologies Against Those Who Attack the Divine Images*. Translated by David Anderson. Crestwood, NY: St. Vladimir's Seminary Press.
- Johnston, Robert K. (2009). Theological Approaches. *The Routledge Companion to Religion and Film*. (Ed.) John Lyden. New York: Abingdon.
- _____. (2007) Transformative Viewing: Penetrating the Story's Surface. *Reframing Theology and Film: New Focus for an Emerging Discipline*. Ed. Robert Johnston. Michigan: Grand Rapids, 304-21.
- Kimball, Dan (2009). Emerging Worship. *Perspectives on Christian Worship: 5 Views*. Nashville, TN: B&H Academic, 288-333.
- Lewis, C. S. (1958). *Reflections on the Psalms*.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 _____. (1968) *Of Other Worlds*, London: Geoffrey Bles.
- _____. (1954) (ed) *George MacDonald: An Anthology*, New York: Macmillan.
- Lyden, John (2007). Theology and Film: Interreligious Dialogue and Theology. *Reframing Theology and Film: New Focus for an Emerging Discipline*. Ed. Robert Johnston. Michigan: Grand Rapids, 205-218.
- Marsh, Clive (1997). Film and Theologies of Culture. *Explorations in Theology and Film: Movies and Meaning*. (Ed.) Clive Marsh and Gaye Ortiz. Malden, MA: Blackwell Publishers, 21-34.
- McCormick, Patrick T. (2012). *God's Beauty: A Call to Justice*. Collegeville, MN: Liturgical.
- Pinson, Matthew (ed) (2009). *Perspectives on Christian Worship: 5 Views*, Nashville, TN: B&H Academic.
- 서나영 (2018). 개혁교회 예배 안 시각예술 사용에 대한 신학적 고찰. *한국개혁신학* 58, 175-212.
- _____. (2018). 아름다움과 안식: 예술의 역할에 대한 신학적 고찰. *신앙과 학문* 23(2): 120-142.
- _____. (2018). 신앙과 예술: 기독교 예술에 관한 성경적 이해. *신앙과 학문* 23 (4): 63-98.
- Gary L. Thomas (2000) *Sacred Pathways*, Grand Rapids : Zondervan.
- Ryken, Leland. (2005). *The Liberated Imagination: Thinking Christianly About the Arts*. Eugene, Oregon: Wipf and Stock.